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

오늘 발표, 토론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비전과 알찬 토론을 들으니 가슴이 떨리는 버릇이 다시 생긴 것 같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원고를 외워오는데 오늘 발표와 토론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다양하게 나와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외운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분위기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박수) 보고회를 미리 짜가지고 한 것 같긴 한데, 오늘 꼭 안 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웃음)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반열에 오르는 엄청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들어보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전을 국가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가 확실히 알고 따라오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번 '밀어주겠다'고 한 다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든지 다시 다짐을 하고 가라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한국 국민들은 짧은 기간 역사를 경이롭게 이룩해 무한히 존경스럽고 희망을 가집니다. IT, IT 하지만 10년 남짓 기간 동안

누가 보더라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반열에 오르는 엄청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기여가 크고, 대업을 이룬 전체 국민들의 역량에 존경심을 갖는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IT를 하려면 한국에 가서 벌여보고 되거든 크게 벌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벤치마킹 대상, 모델국가가 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평균 18.8%란 고도성장을 보인 IT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다. IT 아니면 뭘 먹고 사냐고 할만큼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IT산업이 세계 1위인 것은 물론이고, OECD 국가의 평균 2배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잘 한다, 잘 한다 했는데 그 정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산업이 서로 보완하고 통합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가슴에 와서 닿았고 구체적 확신을 갖게 하는 보고였습니다. 이전의 E-KOREA에서 U-Korea로의 개념 변화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 국민이 IT세계에 확실히 편입돼 주민 생활에 일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산업이 서로 보완하고 통합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생활이 이 방식 내에 통합되면, 산업혁명이 아니라 문화혁명이라 할 만합니다. 839전략이 그야말로 국민생활에 혁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국민생활에 일대혁명을 가져오는 U-Korea로 확실히 도약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준 장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얼마 전 개각 얘기 나오면서 누가 정통부 장관을 노린다는데 그게 잘 안 바뀌겠네요.(박수)

U-Korea의 U가 Ubiquitous가 언제, 어디서나라는 뜻이라 했습니까, 그 뒤에 '모두가'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보격차가 없도록 각별히 계획해서, 개개인이나 통합되는 기업영역에서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 점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누차 지시, 강조했었습니다.

기술보호 영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요새 뭐하는지 조용한데, 뭘 하고 있냐 하면 기술보호 영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정보 보안에 각별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고,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국가체제로 정보 보고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정보누출 문제에 분명히 대처해야 합니다. 정보 집중은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보 집적을 막을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정보가 남용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정보화시대에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정보화 발전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중화학공업시대에 기업발전 전략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정보화시대에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술 신뢰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술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을 먼저 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에 걸리지 않겠느냐 염려할 수 있지만,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웃음)

기술개발 지원, 인력개발을 통해 우수한 산업인력 지원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기술인력 교육, 훈련 과정을 함께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정부에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국민의 IT화 시대'로 가는데 산업에서 IT가 주된 것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선 국민이 소비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명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IT회사 주식을 한 주라도 갖도록 하면 그게 총체적 U-KOREA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중복에 대해 조금은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IT화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혜택이 필요한데 바로 적절한 시기에 토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래가 투명화 될수록 실질적 손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전 사회가 투명성을 갖도록 해야 명분이 섭니다. 기술평가, 창업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중복투자, 혼선 문제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중복이 어느 정도 돼야 경쟁체제에 효율성이 생깁니다. 투자중복에 대해 조금은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정책조정을 통해서 혼선과 갈등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 지출이 과다하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시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과를 국으로 격상시키는 제안은, 산업은 기업이 정부를 앞장서 해 나가는 것이라 이거 만든다고 잘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연구해 보고 정통부 장관이 그렇다고 하면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처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려 한다. 정부혁신은 여러 부분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싸움은 국회서 하고 정부는 강력히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의하자. 핵심부분인 전자결재는 단순히 종이를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지식공유와 지식경영 시스템을 정부에 전면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땀을 흘리며 만들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에 관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낙관적 전망과 희망을 가지고 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안 된다고 말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행착오에 관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실패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실패일 수 없습니다. 장치산업과 달리 IT산업은 기술과 사람을 밀천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된 자원은 모든 부분에 축적돼 사회에 남게 됩니다.

표면위로 떠오르는 성공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인내와 관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업을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느긋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러나 미치도록 합시다.

한 마디 빠트렸습니다. 지난날 벤처 붐을 실패로 평가하는 데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직접 지원방식이 많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게 대단한 토목공사를 해놓고 방치한 것도 아니고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것입니다. 큰 틀로 보서는 엄청난 지적역량을 축적한 시기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